

# 전국개인택시- 연합회신문

여름호 | 2014년 7월 15일

발행인 유병우  
편집인 이성운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9-11번지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 “불법택시 영업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불법택시 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6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 갑) 등 10인은 ‘불법택시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불법택시 영업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운수사업법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운수사업법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유상운송을 콜 영업 형태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도 감독 관청의 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 활개를 치고 있어 택시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불법택시 영업행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 뿐만 아니라 자가용 자동차 뱅행 화물자동차 등이 호텔·유흥업소 밀집지역, 터미널이나 공항 등에서도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도 적



▲ 포상금을 걸고라도 불법택시영업은 택시업계를 위해서도 승객을 위해서도 근절되어야 합니다.

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단속기관의 인원이 부족하면 포상금을 걸고 신고를 독려 해야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하고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택시에어백 의무장착에 따른 재정지원법 교통법안소위 상정

2014. 8. 7. 신규등록 하는 택시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에 의무장착해야 하는 에어백에 대한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9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낙연 전의원(현 전남지사)등 10인이 2014. 1. 28. 대표발의한 동법률안은 19대 국회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및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정성호 의원(경기도 동두천·양주)도 공동발의에 참여한 법안이다.

정성호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택시업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온 택시통이다.

조선시절에도 택시업계의 골칫거리였던 6번형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 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처벌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및 통과하여 택시업계의 뜨거운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및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정성호 의원.

한편,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시간에 쫓겨 동법률안을 심사하지는 못했지만 추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

최고한도 4,000만원 + 연 5.9% + 수수료 0원



#### 상품안내

- 전화 한 통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
- 차량담보가치를 활용한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 한도 : 최소 300만원 ~ 최고 4,000만원
- 금리 : 최저 연 5.9% ~ 최고 19.9%(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 기간 : 12/24/36개월 중 선택 가능
- 근저당 비용 : 없음
- 취급·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연체 이자율 : 17.9 ~ 29%(대출금리별 차등 적용)

#### 혜택

- 개인택시 기사님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 (한시적 적용으로 금리 변경 가능)
- 방문 없이 전화로 대출 가능(심사기준 완화)

#### 대상고객 및 차종

- 운행 이력 1년 이상의 개인택시 사업자
- 출고 이후 7년 이내의 본인 소유 택시
- 기타 본인 소유 차량 담보 가능(승용, RV, 승합, 상용 등)
- 설정 및 압류 차량인 경우, 해지 후 대출가능

#### 이용방법

- 현대캐피탈 고객센터 1588-5330 (상담 시 전국 개인택시 공제 조합원 여부를 상담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 대상고객, 차종,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확인 요망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빛, 교통의 시작입니다.”  
준법감시심의필 제140702-165545호(2014.07.03)





##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유병우 회장 인사말

# 안산시 조합 조합원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16만 4천 사업자 여러분!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는 전국민을 분노와 절망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어른들의 무사안일함과 무책임, 무대응으로 인해 꽃다운 우리의 자식들 300여명이 전국민이 보는 눈앞에서 사망·실종되었습니다.

희생자의 대다수가 아직 피지못한 꽃 봉우리 고교생이었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침몰원인과 구조 과정에 대해서는 차츰 밝혀지게 되겠으나 책임있는 관계자에게는 엄중하게 심판하여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라는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정부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자원 봉사에 나선 시민들의 헌신과 열정은 국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참사 다음날 '안산 개인택시조합'(조합장 백용호) '안산개인택시조합 단원구지부'(지부장 나상균) 등 700여명은 안산시내 무료운행 봉사를 시작으로 왕복 10시간이 넘는 안산~팽목항, 안산~목포간을 희생자 유가족을 싣고 무료운행을 40여일 동안 하였습니다. 택시미터기로는 30~40만원, 유류대, 톨게이트 비용도 모두 조합원이 부담

하였습니다.

안산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의 살신성인의 봉사와 희생은 전국민을 감동 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암울한 세상이라지만 희망을 보았습니다. 개인택시 가족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늦었지만 지면을 통해서 2010여명 안산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참사에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가족도 포함되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락, 김철성, 김영일 님이 따님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고인분들도 더 이상 슬픔이 없는 평화로운 곳에서 영면 하시기를 16만 4천여 개인택시 사업자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업자 여러분!

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문제를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시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7월 말경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연합회와 시·도조합에서는 쟁점이 되어 왔던 감차보상, 행정처벌 강화규정, 유가보조금, 총량산정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00% 만족할 수 없으나 사업자 여러분께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정도의 조정은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택시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우리 연합회에서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 시 하위법 공포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16만4천 개인택시 사업자도 유가족님과 슬픔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http://www.ts2020.kr>



# All

차량·좌석

## 전차량·전좌석 안전띠, 이젠 필수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시에는 치사율 3배, 상해 가능성 18배 증가되며,  
특히, 차 밖으로 튕겨나갈 확률이 높아  
이 경우 24배나 높은 사망률을 나타냅니다.

습관처럼 안전띠 All Check On!



TS 교통안전공단

ex 한국도로공사



[김관술 기자가 만난 사람]

서돌식 경북조합 이사장

# 포항지부장 4선, 도조합이사장 3선 ... 중후한 관록

## 감차보상 조속히 실현 ... 택시 경쟁력 회복이 꿈

서돌식 경북조합 이사장은 경북조합 터주대감으로 통한다.

욕심이 없고 친화력이 돋보이는 부드러운 인상이지만 자신이 세운 목표는 꼭 해내는 외유내강형이다. 포항지부장 선거 네 번, 경북조합 이사장 선거 세 번을 치르고도 한번도 실패를 하지 않은 선거의 달인이다.

기자는 6월 18일 경북조합 이사장실에서 서돌식 이사장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Q. 우리 연합회 산하 16개 시도이사장중에서 다선을 하신 고참입니다. 조합원들로부터 끊임없이 선택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요.**

죄송합니다. 부족함이 많은데 다선은 과찬입니다. 조합의 모든 업무는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이사장 권한은 남용하지 않고 처음처럼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조합원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 조합원이 믿고 인정하고 따라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말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다’는 진리로 조합원을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로 생각하고 조합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합 조직이 시·군과 도로 2원화 돼있는 특성 때문에 복지조합을 실현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Q. 1984년 11월8일에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아 포항조합 평조합원으로 출발하여 9년만에 포항조합 5대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경북조합중에서 가장 큰 포항지부를 전국 최고의 복지지부로 발전시켰습니다. 자산이 없는 지부를 복지지부로 발전시킨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지부를 믿고 따라준 포항지부 조



▲ 낙타가 비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선거를 7번 출마하여 7번 당선된 서돌식 이사장은 조합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일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 “ ~~~~~

충전소 허가과정에서 건축하는 과정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의 믿음과 성원이 없었으면 아마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만이 이루어 낸다고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 ” ~~~~~

조합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보내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을 당부 드립니다. 지부에 돈이 없으면 투자계획을 세울수 없는것이 상식이지요. 하지만 저는 조합원들의 성원을 믿고 복지조합 설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지부장이 아니라 포항시의 공인중개사가 되어 사무실에서 포항 시내 지도를 펼쳤다 접었다하면서 사육을 건축할 대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위에 충전소를 짓고 부수고 하는 꿈을 반복하면서 동분서주했던 노력의

나날들을 보낸 결과 포항시 연일을 오천리 현 지부자리에 복지조합을 실현해 냈습니다.

충전소 허가과정이나 건축하는 과정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의 믿음과 성원이 없었으면 아마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만이 이루어 낸다고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Q. 이사장께서 개인택시에 입문했던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택시 입문할 당시는 택시 영업환경이 좋았습니다.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데 걱정이 없었지요.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따는게 대박이었는데 지금은 자녀교육은 고사하고 4인가족이 먹고 사는데도 걱정일 정도가 되었지요. 감차보상 등이 조속히 실현되어 살맛나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Q. 연합회를 중심으로 16개 시도 이사장이 단결하여 현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힘겨운 입법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렵게 ‘택시발전법’이 통과되었는데 시행령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택시발전지원법’이란 법안 이름에 걸맞게 택시영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게 정부의 태도입니다. 감차보상 출연금, 삼진아웃제 등은 택시운송업의 여건악화의 책임을 택시업계에 전가하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입니다. 정부는 규제 이전에 경영환경부터 개선해놓고 차후에 규제를 생각하는게 순리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Q. 경북도조합원들에게는 남다른 애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경북조합 경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청사진을 밝혀 주십시오.**

대구시에 있는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에 조성되는 신도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우리 조합도 도청소재지 인근에 조합부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전하게 되는 조합청사는 부지를 넓게 잡아 LPG충전소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조합비 면제 등 나름대로 복지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2014년 2/4분기 주요 사업 추진실적

## 1 택시 감차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규정 및 택시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정

○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택시 감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58호)」 과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59호)」 을 제정·고시(14. 06. 12)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시 감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 사업구역별 및 시·도감차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무원 1명,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대표 1명,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대표 1명, 택시노동조합 대표 1명,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 2명
  -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

- ▷ 사업구역별 및 시·도감차위원회 기능
  - 시·도감차위원회
    - 감차보상금의 수준
    -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산정의 적법성
    - 감차사업 시행기간
    - 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
    - 감차재원 관리주체 감독
    -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
    - 연도별 감차계획의 시행결과
  -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
    -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법령 및 기준 준수 여부
    - 사업구역의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결과
    -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이 아닌 사업구역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

○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

### 주요내용

- ▷ 사업구역별 감차 계획 수립
  - 과잉공급 규모
  -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 감차보상금의 수준
  -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 연도별 감차재원 규모
  -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 감차계획 시행기간
  - 사후관리 방안
  -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
  - 연도별 감차 기대효과

- ▷ 감차대상 및 보상금의 산정
  - 택시 감차보상금(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은 최근 2년 이내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상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 함.

▷ 연도별 감차보상사업계획 공고

- 해당 연도 업종별 감차규모
- 업종별 감차보상금의 수준
- 감차보상사업의 신청 절차
- 감차보상사업의 구비서류

## 2 개인택시업계 규제개혁 과제 제출

○ 연합회는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14. 03. 20), 국무회의 등을 개최하여 규제개혁을 추진 중인 바, 이와 관련하여 우리업계에서 수십 년 동안 행정규제로 시행되어온 개인택시 부제를 폐지하여 공공수단인 국가자원을 100%로 활용하고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하여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각 시·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표자 명의로 택시부제를 폐지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시부제 폐지」 건의 주요내용

| 문제점   | 건의   |
|---|--|
| <p>□ 택시의 운영을 제한(택시부제)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관청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인가한 자동차의 운영을 제한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제4조(규제법정주의)에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 하여야 하며”라는 조항에 위배</li> <li>- 택시업계의 자율적인 경영체계를 저해하고 행정규제로 인하여 경제의 활성화를 저해</li> </ul>                                     | <p>□ 부제를 해제할 경우 사업자별로 필요한 날짜와 시간을 이용하여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운전을 하지 아니하게 됨. 따라서 사고예방효과는 물론 대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함.</p>  |
| <p>□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함이 차량운행 규제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운전자의 과로운행을 촉진 등 부작용만 양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택시사업자의 생체리듬상 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시기에도 생계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li> <li>- 차량 운휴일에 사업자가 입은 수입손실을 운행일에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차량운행을 하게 됨에 따라 사고발생의 위험도가 증가</li> </ul> | <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 사업면허 취소·사업등록 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위반내용 52호 삭제 (차량정비·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운행정지 등 안전수송을 위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여 운행한 때 : 1차 사업일부 정지 10일, 2차 사업일부 정지 10일)</p> |
| <p>□ 훈령에 택시의 증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군수는 증차의 수단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권자인 시장·군수는 개인택시 대기자의 요구 충족, 법인택시 근로자의 반발을 우려하여 택시 부제를 실시</li> <li>- 운휴하는 차량대수 만큼 계속 증차한 결과, 과잉공급 상태로 불필요한 증차는 국가자원을 낭비시키고, 사업자의 경영상태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의 면허 공급 정책</li> </ul>   | <p>□ 부제 전면폐지(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9조 삭제)</p> <p>□ 당장 전면폐지가 어렵다면 일정기간 부제 완화 시행 후 폐지(예시) 3부제 → 10부제, 6개월 후 폐지 등)</p>   |

## 3 일반기업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에 적극 반대 건의

□ 당 연합회와 일반택시연합회는 산업단지 통근 전세버스 운행이 택시와 버스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 1월 전국 9개 단지에 대해서만 허용되었던 것이



2013. 12월 25개 산업단지로 확대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지역 택시업계는 승객감소에 따른 운송수입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때에 개별 또는 복수의 기업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통근용 차량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현재 만연해 있는 전세버스의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합법화하여 구역여객운송사업인 전세버스의 노선운행을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여객운송사업의 업역구분 붕괴와 택시 및 버스업계의 경영난 심화는 물론, 대부분 지입제로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등 그 부작용이 우려되어 택시업계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건의(‘14. 05. 19)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제점   | 건의   |
|---|--|
| <p>□ 여객운송사업 간의 분란 초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수의 개별기업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전세버스 노선운행을 전면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구역여객운송사업인 전세버스 도입 취지와 상치</li> <li>- 통근·통학용으로 만연해 있는 전세버스의 불법운영을 합법적으로 제도화 할 경우 이를 빌미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불법 여객운송행위의 증가를 방지할 수 없고, 이는 택시업계와 노선버스 업계의 영업권 침해로 업계간 분쟁 야기될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사업의 업역구분이 붕괴되는 결과 토래</li> </ul>                  | <p>□ 개별 또는 복수의 기업이 계약을 통해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행토록 허용하는 것은 여객운송질서의 문란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 등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택시 및 버스업계의 경영난만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기업의 통근 편의 증대는 노선버스의 확충, 환승 시설의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노선버스의 확충이 어려울 경우 대형택시의 도입 및 출·퇴근 시간에 한하여 제한적 합승 허용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 가능</li> <li>- 따라서 일반기업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은 철저히 주시할 것을 건의 드림</li> </ul> |
| <p>□ 안전상의 문제점 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기업 근로자들의 통근편의를 위해 노선버스의 운행확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버스를 이용한 통근버스 운영을 확대하려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li> <li>- 특히, 엄격한 기준에 따른 면허제인 버스·택시와 달리 등록제인 전세버스는 대부분 지입제로 운영되면서 차량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버스·택시와 비교하여 미흡하여 대형 교통사고와 인명사고를 야기해 왔음</li> <li>- 이러한 전세버스를 개별기업의 통근버스로 운영을 허용할 경우,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종사자의 안전을 방지하는 결과 초래</li> </ul> |  |
| <p>□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 초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영을 허용하면서 택시업계와 버스업계의 동기가 없는 한 더 이상의 운영확대는 없다고 국토교통부가 약속했음에도, 2013년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상 산업단지를 확대 고시</li> <li>- 이에 따라 택시 및 버스업계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에까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택시와 버스업계 종사자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만 확대될 것이 자명</li> </ul>                               |  |
| <p>□ 택시 및 버스업계 경영난 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기업이 소속 종사자의 통근편의를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업이 직접 소유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li> <li>- 전세버스를 통근버스로 이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개별기업의 비용지출을 줄여주는 특혜만 있을 뿐 택시 및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li> </ul>  |  |

####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요건 중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주승용의원 등 10인(‘13. 11. 05)이 대표발의, 택시의 운행제한 기준으로 차량과 함께 운행거리 추가함으로써 운행제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주승용의원 등 10인(‘13. 11. 08)이 대표발의, 박기춘의원 등 10인(‘13. 12. 31)이 대표발의 한 3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4. 04. 17),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14. 04. 28) 및 제1차 본회의(‘14. 04. 29)를 각각 통과하여 공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주요내용

##### 주요내용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요건 중 하나인 자격시험을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이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취득자가 이론과 실기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함.
- ▷ 택시의 운행제한 기준으로 차량과 함께 운행거리를 추가함으로써 운행제한 기준을 합리화

#### 5 제3차 택시총량제 조사관련 질의답변 내용

○ 국토교통부는 제3차 택시 사업구역별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질의 요청 및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 및 실태조사 용역기관 등이 참석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실태조사 교육계획(‘14. 04. 15)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제3차 총량제 조사 관련 질의답변 설명서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총 운행거리(시간)’의 정의

- 지침
  - 출고시간(영업개시)부터 입고시간(영업종료)까지의 거리(시간)
  - 다만, 식사 및 휴게로 중간에 요금미터기 꺼놓은 해당시간은 제외
- 답변
  - 총운행시간(거리)은 출고시간부터 입고시간의 거리(시간)를 적용
  - ※ 중간에 식사 및 휴게시간 등 미터기 꺼놓은 어떤 시간도 제외하면 안 됨
- 참고
  - 이론상으로 식사, 휴게시간 등 영업중단시간 제외가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영업대기시간(공항, 터미널등), 개인적 용무 등 다양한 사정을 구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기준)가 없으며, 이번 제3차 총량제의 ‘목표시간실차율’도 이런 사정으로 출고-입고시간 기준으로 설정되었음
  - 따라서 총 운행거리(시간)도 동일한 기준 적용해야 하며, 상이한 기준 적용시 실차율 및 가동률의 왜곡 초래
  - ※ 특히, 이번에 ‘시간’실차율의 도입취지는 영업대기시간(대부분 시동끔) 대비 영업시간의 비율을 보정하기 위한 것임

##### 2 ‘현재가동률’ 산정방식(특히 ‘현재면허대수’의 정의)

- 지침
  - 가동률 정의 : (실제 영업한 택시대수)/(총 면허대수) X 100
  - 현재가동률 = 실제운행대수/현재 면허대수(부제차량 제외)
- 질의



- 현재가동률 산정시 '현재면허대수'의 정확한 개념혼란

■ 답변

- '현재 면허대수'는 '조사차량(샘플) 대수'를 말함

■ 참고

- 가동률의 실제개념은 실제운행대수/총면허대수가 맞으나, 타코자료 조사분석을 통한 모든 차량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1차 총량조사시는 각 회사의 자료를 기초로 모든차량에 적용한 경우가 있으나 당시는 자료획득 가능한 법인택시만 적용했음

- 이번 3차 총량조사는 법인과 개인 모두 객관성 확보를 위한 DGT기록에 의거 조사토록 되어있는 바, 가동률은 조사대상 차량에 한정 조사

**3** 조사표본(조사대상 차량 및 업체) 선정방식 무작위 표본선정 방식

■ 지침

- 조사대상 차량은 '동일차량'으로 가동률과 실차율 조사

- 조사표본 선정은, 지자체가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위해 조사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기관에 통보

- 조사표본 대수는 도시별(인구) 대수비율과 30%이상 업체 조사

■ 질의

- 조사표본 무작위 선정방식, 현실적 조사차량 확보에로 문제 등

■ 답변

- 조사표본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는 총량조사의 핵심사항임

- 어떤 경우에도 조사기관(업체)이 임의로 표본을 선정해서는 안되며, 지자체가 사전에 객관성, 공정성 담보위한 표본선정 기준(대상)을 마련하여 조사기관에 사전 통보, 이에 의거하여 조사시행 토록 조치

- 예) 차량일련번호, 가나다순 등 객관성 확보위한 기준에 의거 조사 표본 대수에 추가하여 여유분을 선정

- 조사기관(업체)는 해당기준에 의거 선정하되 선정방식과 절차, 표본자료 반드시 보고서 및 부록에 첨부해야 함

- 광역시 등 표본대수 규모가 큰 경우는 지자체, 조사기관, 법인 및 개인택시 대표와 반드시 협의하여 일정장소, 교육대상 차량 등 대상 표본을 확보하되, 이 경우 표본선정의 신뢰성 확보위한 선정방식 등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4** 조사표본 중 차량 오류데이터의 배제(유효표본)에 대한 기준은?

■ 질의

- 미터기 특성상 오류데이터 발생률이 빈번함

예) 차량 및 기기상 문제, 운전자 고의누락 등

- 단 1일이라도 데이터 오류 시 제외되어야 하는가?

■ 답변

- 총량제지침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표본선정'의 개괄적 규정

- 오류자료(운행기록 부재) 발생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기본적으로 단1일이라도 기록부재(오류)시 다른차량으로 대체조사

·추가차량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해당 오류자료의 일자를 제외하고 조사분석(이 경우 정당한 사유를 보고서에 언급할 것)

**5** 미터기의 입출고 자료가 없는 차량의 '총운행거리(시간)' 적용문제

■ 질의

- 일부지역 차량의 경우 장착된 미터기에 출고 및 입고시간 자료의 입력부재로 출고/입고시간(거리) 적용애로

■ 답변

- 기본적으로 입출고 자료 가능한 타 차량으로 대체

- 대체 불가시는 첫승차와 최종하차를 각각 입·출고시간으로 간주

**6** 미터기 자료가 1개월치만 확보되어 있는 경우(지침상 2개월)

■ 질의

- 미터기(예, 금호KH-TOP 등) 자료가 1개월 치만 저장되어 있는 경우

■ 답변

- 기본적으로 2개월 치 자료 확보 가능한 차량으로 대체

- 대체 불가시는 1개월치 자료의 표본수 2배 확보 조사시행

**7** 표본차량 선정(가동률, 실차율 산정)시 휴업, 행정처분, 고장 등의 차량을 포함하는지?

■ 질의

- 일반적으로 위의 경우 조사표본 및 가동률 산정 등에서 제외되는지?

■ 답변

- 면허 중인 부제제외한 모든차량(휴업, 고장 등)을 포함

※ 동두천시의 특수한 사항은 현지실정 파악을 전제로 국토부 담당자 에 별도 문의요망

**8** 가동률 산정시 1일 대당 10시간이상 기준 적용시 1일의 범위 등 구체적 산정방식?

■ 질의

- 운행시간이 다음날로 넘어갈 경우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운행시간이 48시간 이상일 경우 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 답변

- 우선, 운행기록지를 보고 출고 및 입고시간을 명확히 설정하되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단(개인택시의 경우 운행시간 패턴을 보고 판단)

1) 당일 출고/입고시간이 명확한 경우

- 원칙대로 당일기준 적용(10시간이상 1일, 이하는 가중치 적용)

2) 출고후 입고시간이 다음날에 걸치는 경우(예, 3일 17:00-4일 10:00)

- 출고일 기준으로 운행일수 적용

3) 출고후 입고시까지 운행시간이 2일 이상에 걸치는 경우

- 1일 24시간 기준으로 구분하여 일수산정, 10시간 이하는 가중치 적용

※ 주의

- 차량2교대제, 격일제, 1인1차제 등 운행특성(운전자요건)에 관계없이 차량 당 운행시간기록 자료로 분석

**9** 기타사항

■ 심야에 부제일 넘어 운행하는 1-2시간 정도 초과시간의 적용문제?

- 전일 부제일 기준으로 추가 운행시간 포함하여 적용

■ 개인택시의 경우 샘플대수 차량 확보가 어려움(미협조 등)

- 중소도시 이하지역은 개인택시업체와 지자체 공조로 조사협조

- 광역시 등 샘플규모 큰 지역은 지자체, 택시단체와 협의하여 집체교육 기회 등 활용방안 검토

■ 수도권 도시 등에서 최근 인구증가 요인에 대한 총량산정 반영요청

- 지침상 총량수립 이후 주민등록인구 10%초과의 경우 재산정 규정이 있으며, 이외 어떠한 지역사정에 따른 별도의 고려요소 없음

- 주민등록상 인구는 내국인, 외국인 불문함

■ 농촌지역의 미터기 미사용 영업관행, 개인택시의 경우 차고지에서 사업구역까지의 이동거리(시간) 제외 등 고려요청

- 개별차량 단위로는 특수사정 반영이 타당하나, 전국통일 기준적용상 구체적 사정을 분석할 방법이 없고, 임의왜곡, 조작가능성 등 배제한 전국동일의 공통기준 적용토록 함

- 도농통합지와 일반도시지역의 목표실차율 차등적용 건의도 상기 이유로 전국통일 기준 적용(도농통합지는 목표실차율에 이미 평균치 조사결과가 반영된 것임)

■ '조사시행 시점'의 정확한 개념



- “조사용역 계약일”이 원칙이며, “착수일” 기준도 무방함
- 최근 2-4개월 조사시기의 지역별 사정에 따른 부적절 요인(임금인상, 방학 등)을 고려하여 4-5월등 타당한 조사시기 변경여부
  - 원론적으로 조사시기는 계절별 요인이 큰 변동 없는 4-5월, 9-10월이 보다 타당하나, 급변 총량조사수립 일정상 전국공통 기준적용으로 특정도시만 조사시기 변경은 안됨
- 가동률, 실차율의 항목별 조사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 가동률 : 법인 6개월, 개인 2개월 이상(종래 법인 1년, 개인 2주)
  - 실차율 : 개인, 법인 모두 2개월 이상치 적용
    - ※ 조사표본 대상(가동률, 실차율 산정)은 동일차량(표본)
- 가동률, 실차율 산정시 소수점 단위는 몇 자리까지 할것인가?
  - 소숫점 한자리(두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10 지자체의 총량제심위 운영방법

- 질의
  - 지자체의 총량제심의위를 기존의 교통제도개선위(버스업계 등 참여)를 통한 심의해도 문제가 없는지?
  - 지자체 총량심의위 심의는 총량조사 결과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검증전에 시행하는지, 검증 후에 시행하는지?
- 답변
  - 지자체의 총량제심의위 구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영
  - 국토부의 총량산정 재검증은 각 지자체의 총량조사 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총량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하여 검증

##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심사 결과

○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안건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중요규제인지의 여부를 사정에 미리 심사하였던 결과, 제424회 규제(강화·신설) 예비심사결과 내용 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비중요 규제로 심의의결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주요내용

- ①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및 사업정지 등 처분기준 (신설)
  - 1) 운송비용을 전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1년 내 위반행위의 횟수산정) 사업일부정지 90일(1차), 감차처분(2차)을 부과함. 단 핵심비용(유류비,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 시 사업일부정지 120일(1차), 면허취소(2차)
    - 단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자 책임 면제
  - 2) 소속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자동차를 제공하는 경우 면허 취소를 부과함.
  - 3)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부당요금, 합승, 영수증 발급 및 카드결제 거부 금지 위반 시(1년내 위반행위의 횟수산정) 운행 정지 60일(1차), 운행정지 90일(2차), 운행정지 180일(3차)을 부과하고, 승차거부 금지 위반 시(2년내 위반행위의 횟수산정) 운행정지 90일(1차), 운행정지 180일(2차), 면허취소를 부과 함.
  - 4)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부당요금, 합승, 영수증 발급 및 카드 결제 거부 금지 위반 시(1년내 위반행위의 횟수산정)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사업일부정지 90일(2차), 사업일부정지 180일(3차)을 부과하고, 승차거부 금지 위반 시(2년 내 위반행위의 횟수산정)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감차명령(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함. 단 위반지수를 기준으로 부과.

- \* 위반지수=(위반건수)/(면허차량 보유대수)x5
  - 위반지수가 1, 2, 3에 이른 경우 각각 1차, 2차, 3차 위반 적용
- 5) 3회 이상 보고나 서류제출 미실시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검사 거부. 방해 시 사업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이상 15일), 허위 보고. 허위 서류 제출 시 사업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이상 15일) 처분을 부과함.
- 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 운송비용 전가금지 의무 위반 시(1년내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 과태료(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000만원)를 부과함.
    - 단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자 책임 면제
  - 2)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승차거부의 경우 2년,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1년내 위반행위의 횟수산정) 과태료(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를 부과함.
- ③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처분기준(신설)
  - 1) 승차거부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0일(1차), 자격취소(2차)를 부과함.
  - 2) 부당요금, 합승, 영수증 발급 및 카드결제 거부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0일(1차), 자격정지 20일(2차)을 부과함.

## “우버(Uber) 한국 떠나라!”

### 서울개인택시조합, 우버 택시유사영업 행위 규탄

세계적으로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의 모바일 차량콜 서비스 업체인 ‘우버(Urber)’가 한국의 택시업계로부터도 큰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버’의 영업형태를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국철희 이사장과 집행 간부 및 임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버는 불법적인 유상운송 행위이며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도 위협을 받게된다”고 주장했다.

택시는 안전과 관련해 운전기사와 차량, 보험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으나, ‘우버’ 서비스는 기사고용, 차량검사와 보험 등에서 업체에 맡겨져 있거나 아직 검증되지 않아 이용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주장에 따르면 우버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

에 고발했지만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렌터카를 이용한 외국인 수송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합은 “대기업들이 법을 교묘히 이용해 외국인에게는 렌터카에 대리 기사를 포함해 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렌터카 사업이 주목적이지 아니라 결국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대기업인 KT 금호렌터카가 시행하고 있는 기사 딸린 렌터카 즉 쇼퍼서비스는 명백한 택시유사영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관계자들은 정부는 즉시 대기업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여자동차를 이용한 운전자 앞선 허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제경쟁력을 말한다.

# 대인보상실무과정 교육현장을 가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보험연수원에서 전국 16개 지부에서 선별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인보상실무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개인택시공제조합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실시한 맞춤형 교육으로 공제조합 보상 업무에 특화된 교육내용으로 일정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대인배상관련법규와 실

무 사례분석 및 적용의 내용으로 진행된 대인배상실무, 배상의학이론 분야인 신경·정형외과 강의, 과실 적용 및 구상소송 실무 등으로 꾸려진 소송실무, 대고객 만족 서비스 향상과 피해자와의 협상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한 CS강의로 일정이 진행되었다.

동교육은 공제조합 직원들이 단계적으로 받게 되는 교육과정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과정으로써 대인보상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 및 실무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업무의 기초 배경 지식을 습득하고 보상담당 직원으로서의 역량을 확고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년 실시되고 있다.

교육의 첫째날에는 대인배상실무 이론에 대한 강의를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상업무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관련법률과 보상이론이 어떻게 접목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강의를 이루어져 교육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둘째날에는 의학이론강의와, 소송실무 강의를 있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의 과목으로 진행된 의학강의에서는 배상의학의 기초가 되는 기초 의료 지식 뿐만이 아니라 근래 새롭게 도입된 각종 치료술, 약물 등에 대한 상세한 강의도 진행됐다. 소송실무 강의에서는 사고유형별 조사기법과 과실적용 기법 등 사고초기 업무진행 요령과 함

께 소송실무, 구상업무 절차 등의 강의도 함께 진행됐다.

교육의 마지막날에는 요즘들어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대고객 만족 서비스 및 고객 응대요령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특히 이론 강의 뿐 아니라 실습의 시간도 함께 진행되어 직원들이 실제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보면서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확고히 하는 한편, 고객응대 스킬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비록 3일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된 교육이었지만, 교육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하며 교육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직원들의 열정과 수고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제 2014년도도 벌써 절반이 흘러갔다. 남은 반년에도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공제조합의 서비스를 받게 될 모든 고객들을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활약할 공제 직원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금번 취재를 마무리 했다.

## 유병우 연합회회장, 공제조합 민원 감소대책 지시



근래 들어 정부시책 중 하나인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 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제조합의 이미지 개선 및 보상 서비스 향상에 민원감축은 꼭 필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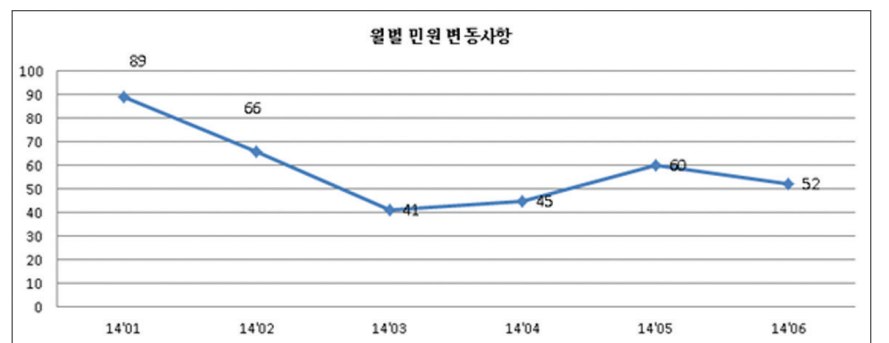
민원 분석 현황을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민원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4월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며, 서울·경기지부 등 수도권 지부의 민원

제기율이 전체 민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지역의 보상 서비스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 6월 23일 연합회장 주재로 제2차 민원 담당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연합회장은 보상금 제시 후 연락도 없이 방치하는 행위



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민원 유형임을 강조하였고 민원 감소 대책을

도출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당부하였다.



### 벼룩 간을 빼먹자... 불법택시 영업으로 10억 챙겨

서울 시내 특급호텔과 렌터카 업체들이 계약을 맺고 외국인 호텔 이용객 등을 상대로 불법 운송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호텔과 렌터카 업체간 조직적인 불법영업이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면허 없이 고급 렌터카를 이용해 호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R특급호텔의 외국인 총지배인 S(42)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달 2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모범택시 기사들이 "호텔에서 고급 렌터카를 불법운영하는 바람에 손님이 줄었다"며 "불법 고급 렌터카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호텔과 렌터카 업체 대표들은 지난 1~3월 고급 렌터카를

호텔에 상주시켜 외국인 등을 목적으로 태워주면서 총 9억6000여만원을 벌어들인 뒤 이를 각각 10~17%, 83~90% 등으로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본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들을 운전기사로 고용했고 호텔 이용객들을 인천국제공항 등지로 태워주면서 1인당 12만~17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호텔 8곳, 렌터카 업체 6곳 등을 적발하고 한국관광호텔협회에 협조문을 보내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렌터카 73대가 보험적용 면책사유를 속이고 136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이를 수사해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자 전원을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 영업행위는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문제로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택시운수종사자 중대범죄자’ 택시 운행 금지 강화 추진 권익위, ‘택시기사 자격취득 후에도 범죄경력 상시조회’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4. 6. 24(화)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권고 하였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

-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상시화(정기, 취업 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시 범죄경력 조회 제도 실효성 확보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중대범죄 검증 강화
- ▶ 불법택시영업행위 근절 방안 마련
  - 불법택시도급행위 처분기준 강화
  - 불법택시영업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
- ▶ 택시운수종사자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 택시 운전적성 정밀검사 사전통보제 도입

□ 앞으로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 후 택시운전을 하는 중이라도 강도나 마약, 성범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안 마련이 추진된다.

현재는 범죄경력 조회를 하여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취득 이후에 저지르는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으로는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관할관청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아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기사’)가 운행 중에 범죄를 저지른 이후 택시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있었다.

▲ 11면에 계속...

인터넷 <http://www.개인택시.org> 으로도 기사확인 가능합니다.

## 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대출안내

| 스마트카드연계대출   | 모아대출(신상품)  |
|---|--|
| <p><b>최고 1,000만원이내</b><br/> <b>연6.55%(변동금리)</b><br/>                     (이용고배당우대효과 : 연6.24%)</p>   | <p><b>최고 5,000만원이내</b><br/> <b>최저연6.70%부터 (변동금리)</b><br/>                     (이용고배당우대효과 : 연6.34%)</p> |
| <p>※ 택시요금 결제금액 입금통장을 본금고 계좌로 이용(변경) 하시는 회원에 대하여 대출하여 드립니다.</p>  | <p>※ 개인 신용도 및 본금고 거래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등이 결정됩니다.</p>  |
| <p>□ 이용고배당 우대효과는 대출금액 1,000만원 및 최저금리 기준이며, 2013 사업년도 이용고배당 기준입니다.<br/>                     □ 1회원 총 대출한도는 최고5,000만원 이내에서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br/>                     □ 마이너스대출시 0.5%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br/>                     □ 대출자격 및 대출조건, 대출한도, 대출금리 조회는 본인이 직접 본점 또는 지부사무실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  |



문의전화 : 02) 423-5087~9 본점 및 각 지부 사무실





혁신, 그랜저의 원형은 바꾸지 않는다  
**2015 그랜저 택시 탄생**

| 2015 그랜저 신규 외관 디자인 사양 | 신규 라디에이터 그릴 | 신규 디자인 17인치 AL 휠 | LED 안개등 (다크룸 가시성 향상) | 롤오버센서



|   |  |  |  |  |
|---|--|--|--|--|
|   |  |  |  |  |
| <b>그랜저의 안전성</b>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롤오버센서 9 Air Bag</li> <li>· 속도감응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MDPS)</li> <li>· EBD-ABS, VDC</li> <li>· 프로젝션 헤드 램프</li> <li>·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amp;안개등</li> </ul> |  |  |  |  |
|   |  |  |  |  |
| <b>그랜저의 간편함</b>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주행 모드</li> <li>· 6단 자동 변속기</li> <li>· 버튼 시동&amp;스마트키</li> <li>· 크루즈 컨트롤</li> <li>· 스마트 트렁크</li> </ul>                                       |  |  |  |  |
|   |  |  |  |  |
| <b>그랜저의 편안함</b>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석 4WAY 리버 서포트</li> <li>· 8인치 스마트 네비게이션</li> <li>· 앞좌석 통풍시트&amp;후석 열선시트</li> <li>· 열선 스티어링 휠</li> <li>· 뒷좌석 후방 전동 커튼</li> </ul>               |  |  |  |  |

**GRANDEUR**  
TAXI

**HYUNDAI**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 9면 '택시운수종사자 중대범죄자' 택시 운행 금지 강화 추진 기사에 이어...

□ 국민권익위는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택시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이 포함된 「택시승객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택시기사의 자격정보 및 교육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택시기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택시 운전적성 정밀검사 사전통보제도 포함됐다.

○ 국민권익위가 파악한 현행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및 관리 방안 등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실효성 확보

○ 현행 제도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때 범죄경력 조회를 하여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관할관청에서 택시기사가 택시운행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이거나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범죄를 저질러도 택시기사로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관할관청이 매년 1~2회 택시기사에 대한 범죄경력을 정기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등 중대범죄 전과자가 택시를 몰지 못하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2013년도에 관내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 결과(국토부 전수조회결과 포함) 적발된 53명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였음.

2013년 4/4분기에 취업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6명의 결격자가 적발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었고, 2014년 1/4분기에 취업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4명의 결격자가 적발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됨.

하지만, 상당수의 시·도에서는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최근 3년간(2010. 1월 ~ 2012. 12월) 택시 관련 민원 : 2,121건 접수  
- 2010년 821건, 2011년 707건, 2012년 593건(국민신문고)

○ 승객들이 주의해서 택시를 타야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예방법보다는 택시기사 자격요건의 강화라든지 지속적인 택시 단속 등을 추진해주었으면 한다. 이젠 낮에 택시를 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탈 것 같다.(국민신문고, 2012. 3. 30.)

○ 택시 기사들의 '마약 운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부산동래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택시 기사 정모(45)씨를 구속했다. 정씨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3차례 입건된 전과자였다.(13. 2. 28. 조선일보)

○ 수년간 상습적으로 강도와 절도 행각을 일삼은 30대 남자가 택시 기사로 취업해 여승객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택시회사의 운전기사 채용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서울용산경찰서는 6일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여승객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38)씨와 그의 친구 윤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10. 4. 6. 연합뉴스)

○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력범죄 전과자나 노약자 등을 도급 택시 기사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업주 오모(65)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중략) 오씨 등은 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력이나 전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강력범죄 전과자나 신용불량자 등 무자격 택시기사들이 주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택시 운행 중 승객을 성폭행하고 강도 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10. 7. 30. 국민일보)

▶ 개인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 택시운송사업자이면서 동시에 택시기사이기도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타인과 면허를 주고받을 때(양도양수)는 「여객자동차

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특정강력범죄 등의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금지산자나 한정치산자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 결격사유 여부만 확인하고 있어 강도, 마약,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도 개인택시를 운행할 우려가 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타인과의 면허 양도·양수 시 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권고하였다.

○ 허가관청(구청, 군청)에서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시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여객법규위반사항 관련)를 의뢰하고, 무사고 여부를 관할 경찰서에 조회하고 있으나 범죄경력자료 조회는 하지 않음(권익위 실태조사, '13. 4.)

○ 개인택시 양도·양수 시 양수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진단서에서 전염병, 마약성분 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음. 운전면허 무사고 기록을 경찰서에 조회하고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를 의뢰하고 있으나 범죄경력자료 조회는 하지 않음(권익위 실태조사, '13. 4.)

○ ○○시는 대리운전 인가 시 대리운전자의 운전사고 경력 조회는 ○○남부경찰서에 의뢰하고 있으나 범죄경력자료 조회는 하지 않음(권익위 실태조사, '13. 4.)

▶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중대범죄 검증 강화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데,이 대리운전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 이에 따라 대리운전 신고 시 대리운전자의 전염병이나 마약복용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 범죄경력 조회도 의무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 개인택시 양도양수 시 양수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운전 신고의 경우에는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대리운전 허가기간은 통상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내임(권익위 실태조사, '13. 4.)

○ 경기도 ○○시의 경우 2013년 2월초부터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고 시 자발적으로 조합에서 대리운전자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마약, 전염병 여부 등에 대한 검사항목을 포함시키고 있음(권익위 실태조사, '13. 4.)

▶ 불법택시영업행위 근절방안 마련

○ 현행 법규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택시들을 불법으로 다른 업자에게 넘겨 영업토록 하고, 이 업자는 자격이 없는 자 등으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토록 하는 불법 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도급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분기준을 '사업일부정지'에서 '감차명령'으로 강화하도록 개선토록 권고했다.

○ 또한 대여자동차, 자가용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 등 업종을 위반한 불법택시영업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 택시운수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운전적성 정밀검사 사전통보제 도입

○ 이외에,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과 교육정보는 시·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이나 교통연수원이 관리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한 택시기사에 대한 정보관리는 교통안전공단이 맡고 있는 현행 이원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 시·군·구, 택시운송사업조합, 교통안전공단 등의 관련 기관도 택시기사의 자격정보와 교육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조합탐방

## 부산조합을 가다



# 투명경영으로 조합신뢰 높이고 화합경영으로 대립과 파벌없는 조합 만들어

택시의 경영환경이 가장 어려운 때 부산조합은 조합원의 조합 신뢰가 높아지고 조합원의 화합으로 단결되어 있다.

제 13대 이사장에 취임 '깨끗하고 투명한 조합', '오직 조합원을 위해 존재하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 지난 4년동안 열정을 바쳐 달려온 박권수 이사장을 13,964명의 조합원은 제 14대 이사장으로 무투표 당선시켰다. 이는 창립 37년의 부산조합 역사상 또한 전국 16개 시·도조합을 통틀어 사상 유례없이 승자는 있어도 패자는 없는 아름다운 이사장 선거 역사를 만들었다.

지난 5월 14대 이사장 선거가 무투표 당선으로 끝나자 부산조합은 조합에 대한 불신, 반대하는 파벌은 사라지고 화합하는 조합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6월 18일 기자와 만난 박이사장은 "지난 4년처럼 앞으로의 4년도 조합경영은 조합원의 눈으로 보고 조합원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조합원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 ◇ 복지가 으뜸인 조합

13,964대의 개인택시를 경영하는 부산조합은 이사장을 비롯한 100명이 넘는 임직원이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 바쁘게 움직인다.

수익사업의 꽃으로 불리우는 LPG충전소 6개소를 직영하고 있고 시중 가격보다 20~30%가 저렴한 자동차 부품 판매점, 조합원의 든든한 은행인 새마을금고까지 경영하고 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LPG충전소는 수익금 전액을 조합원에게 환원해주는 조건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80%이상이 조합충전소를 이용하고 있다.

박권수 이사장은 2010년 7월 제 13대 이사장에 취임 곧바로 충전소 증설을 추진했다. 수익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지역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개소를 증

설 6개소로 늘렸다. LPG충전소를 늘리고 나니 한달에 115톤 가량 팔리던 LPG가 180톤으로 증가했다. 판매량이 늘면서 충전소 운영에 따른 수익금도 늘어 다양한 명목으로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 환원되고 있다.

2011년 6월부터 0당 20원씩 지급하던 LPG조합비 장려금을 0당 60원으로 대폭인상 연간평균 48억원이 조합원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조합원 이직위로금으로 연간 1억5천만원씩을 적립하고 충전소 활성화 판촉 장려금으로 LPG 500씩 무상지원을 2011년 12월과 2014년 4월 두 차례 걸쳐 실시 14억6천만원 상당이 조합원에게 혜택으로 돌아갔다.

또한 개인택시방법 등 무상교체 비용 2억6천만원 택시요금 인상 미터기 개조수리비 1억원, 디지털미터기 무상장착으로 15억원을 LPG 판매 수익금으로 지원하여 조합원의 복지 혜택을 크게 확대했다.

KT텔레콤 한 곳을 운영하던 휴대폰 대리점은 SK텔레콤을 추가하여 경쟁체제를 도입 연간 3억원정도의 판촉 장려금을 받아 조합원 복지에 쓰고 있다.

### ◇ 등대콜로 승부수 띄워

부산 교통방송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 골든 타임에 친절할 개인을 소재로 유료 광고를 하고 조합원들의 운송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부산조합에는 '등대콜'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지난 2007년 2,500대로 출범한 등대콜은 1500대와 500대씩 두 차례 증차를 하여 4500대의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등대콜 준비를 위해 일본 MK택시를 견학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바람에 항도 부산에 새로운 택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제16회 대한민국 고객 만족도 경영 종합대상'을 받은 등대콜은 해가 갈수록

부산시민의 마음속에 친절한 개인택시상을 심고 있다.

연 6회 이상씩 강도 높은 친절교육을 받고 있는 등대콜 운전자들은 한달 수입이 20~40만원 증가했다고 반긴다.

### ◇ 투명한 조합운영

박 이사장이 제 1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전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신뢰는 낙제점이었다.

'조합에서 하는 일을 먼저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정도로 조합원들의 불신은 팽배했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합운영에서 불신의 원인을 찾은 박 이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운영'을 목표로 세웠다.

조합 회계 전반을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 체계를 확립했다.

이사장과 부이사장, 전무이사의 직무 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동종업종과 비교하여 고임금인 조합부품 판매장 직원들도 전원 계약직으로 전환 예산절감을 단행하고 직원들의 급여 인상을 동결하는 등 조합에 산을 긴축 편성하여 조합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내부 혁신을 실천수범했다.

조합운영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변화되자 조합원들의 불신은 신뢰로 변화되어졌다.

조합원의 분열과 대립은 제 14대 이사장 선거가 무투표 당선이란 기록을 세울만큼 화합과 단결로 바뀌었다.

"4년전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 1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깨끗하고 투명한 조합, 오직 조합원을 위해 존재하는 조합을 만들라는 조합원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막중한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쉽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 결단과 선택



의 순간순간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고민도 많았으며 때론 저 자신의 부족함으로 무력감에 젖을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채찍으로 질타해주시고 무한한 신뢰로 이끌어준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5월 20일 선거를 앞두고 아직도 미완성으로 남은 일들을 추진하고 4년동안의 업무 추진을 평가 받기위해 제 14대 이사장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쟁자들이 출마의 뜻을 접고 무투표 당선 영광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박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이사장과 조합을 신뢰하여 준 성원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리고 약속과 실천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박 이사장은 제 14대 이사장 임기동안 역동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으로 재탄생하기위해 7대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1. 감차재원 조성을 통한 법인택시 위주의 실거래가 택시 보상감차 실현**

갈수록 택시 승객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개인택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택시대수를 줄이는 길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택시 실거래가 보상감차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2.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감차재원 활용) 실현**

감차재원 확보에 따른 업계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을 감차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택시연료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법령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조합의 사활을 걸고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3. 조합 복지사업 이익잉여금 전액 조합원 환원**

조합 복지사업(충전소, 휴대폰 대리점 등)을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이익잉여금이 남도록 할 것이며, 이익잉여금은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을 조합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4. 개인택시부제 규제 폐지 적극 추진**

최근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현재 3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택시부제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수입 증가는 물론 비번운행에 따른 각종 폐단을 원천적으로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카드결제기 무상 교체 및 카드결제 조합원 부담금(수수료, 통신료 등) 전액 지원**

카드결제기가 노후화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전혀 조합원 부담 없이 전액 무상으로 교체토록 할 것이며,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함은 물론 부산시의 보조금도 더욱 확대하여 카드결제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이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6. 정부의 택시연료 다변화(CNG 및 경유 사용 차량)정책에 대비한 사전 준비 철저**

정부에서 향후 추진 예정인 택시연료 다변화 정책(CNG차량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 경유 사용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등)에 대비해 문제점 및 타당성, 사업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 "LPG 공급사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준비 철저**

조합에서 진행중인 "LPG가격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조합에서는 소송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준비에 더욱 철저 기하여 반드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부충전소 고압송전선 통과 보상 청구 소송"은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이미 승소하였으며, 그 보상비는 전액 조합원들께 돌려드린 바 있습니다.

**기타 공약 사항**

교통사고 처리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교통사고처리 서비스 대폭 개선  
블랙박스 교체 비용 및 제조사 에어백 의무장착(2014. 8월 시행)에 따른 정부 지원 추진

조합 직영 경정비 센터 및 택시-베이 추가 증설  
택시요금 인상주기 2년 정례화 및 내년 초 택시요금 인상  
- 택시 승차인원 할증제 및 주말·공휴일 할증제 도입 추진  
렌터카, 자가용 등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강화  
개인택시사업용 차량의 유지비(잡유, 타이어, 정비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개인택시 차량 구입에 따른 취득세 전액(현재 50% 감면) 감면 추진  
교통관련 각종 마스크(TBN 등)를 통한 개인택시 이미지 개선 홍보활동 강화  
경제 생활권(주거 등) 광역화에 따른 택시 사업구역 광역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조합 발전을 이끄는 임원진**



박권수 이사장



박우식 부이사장



강태원 이사



김대기 이사



김무술 이사



김재운 이사



박대식 이사



박병준 이사



박봉보 이사



박윤현 감사



박종국 이사



성현건 이사



심순목 이사



안거포 이사



윤경삼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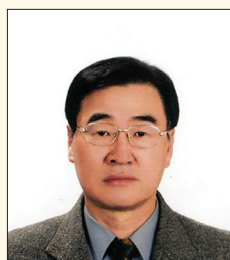
이규운 감사



이성영 이사



이명호 이사



홍영도 이사





조합탐방

## 전북조합을 가다



# 올해연말까지 총 434대 감차실현 전북조합... 택시 경쟁력 복원에 박차

송하진 도지사가 취임한 전북은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광역단체다. 송하진 지사는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북을 만들어 옛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취임소감에서 밝혔다. 송 지사는 “연간 6천8백만명이 찾는 관광객을 1억명으로 늘리고 현재 187만명인 전북도 인구를 2030년까지는 300만명으로 늘려 300만 도민의 시대를 열겠다”고 도정 청사진을 밝혔다.

5,717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전북도조합도 신임 송하진 지사가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히고 있어 어느때보다 희망과 기대를 갖고 새로운 운송환경을 만들기에 단결하고 있다.

“우리 조합은 전국 16개 시도조합중 중간인 8번째 규모입니다. 하지만 조합경영면이나 택시 선진화면에서는 전국 으뜸이라고 자부합니다” 박상익 이사장은 자신감을 피력한다.

### ◇ 택시 선진화 추진

2010년 제10대 이사장에 취임한 박상익 이사장은 자신의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택시선진화 사업 추진에 올인했다. 도비와 시·군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사업 예산 확보를 도비는 도조합이 책임지고 시·군비 예산은 시·군 단위 조합장 책임으로 추진 예산을 확보하여 2011년 5,717대 전 조합원 차량에 장착 완료하고 디지털 운행기록계도 2012년 말까지 조합원 차량에 장착 완료하여 택시기능 선진화 목표를 달성했다. 또한 콜 시스템은 전체 조합원 73% 교통 및 신용카드 결제기는 95%를 장착했다.

또한 택시운송수입 경쟁력을 높이는 보상감차도 정읍시조합을 위시해서 239대를 감차하는 실적을 올렸다.

### ◇ 복지사업 실현

복지사업은 시·군조합이 직접 관장하는 사업으로도 조합은 공급업체와 제휴하여 시·군조합이 거래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고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다.

“도조합이 복지판매를 직영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품과 타이어 등 조합원이 많이 쓰는 소모품을 도 조합이 업체를 선정, 가격협약을 맺어 놓으면 시·군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직접 공급받는 간접적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조합원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지요”

박 이사장은 시·군조합원과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 ◇ 조합원 후생복지

전북개인택시 조합원의 나이가 평균 58세로 60대가 절반에 가깝다. 박상익 이사장은 조합원의 나이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전립선질환, 백내장 및 녹내장 질환, 대장 및 항문질환, 건강종합검진과 관련된 의료기관 및 병원과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조합원 및 가족 진료시 특별우대토록 하고 있다.

협력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한솔비뇨기과병원, 온누리안과병원, 항병원 등에서 조합원 및 가족의 건강상담과 특별우대 진료하고 있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에서는 무료 건강상태 체크와 종합검진에 한하여 20% 할인받도록 하였다.

또한 황선철 변호사를 법률자문으로 위촉하여 조합원들의 크고 작은 민형사 사건의 무료 법률상담과 수임시 타 변호사보다 30%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선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상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과 관련된 법무사 또는 사회 저명인사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합원의 후생복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한다.

유원지나 관광지 주차장 출입에 있어서도 택시는 승객이 원하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승객이 승차한 경우에는 도내 주요관광지의 주차료를 대부분 면제시켰으며, 조합원중 약 20~30%는 신용정보 6급 이하자로 일반 금융기관 거래가 불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후생복지를 위해 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일상생활에 안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 업무용 택시 및 통학택시 확대 추진

전국 최초로 도 광역단체중 임대 업무용 택시를 실시하여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타지 출장시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공무원 본인 및 관용차량 운행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켜 행정기관의 업무 출장택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현재 6개 행정기관 및 대학교에서 20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이외 전북대학교 및 원광대학교에 업무용택시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교에서는 이용자가 전원 교수로 고급차량 및 우수운전자를 배치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지방행정연수원도 업무용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 정읍시, 순창군 등이 현재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고 있고 완주군 등 일부 시군에서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하지 않은 지역은 조합에서 건의하여 전북 14개 시군에 업무용 택시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박상의 이사장은 밝혔다.

업무용 택시 이외 벽지 및 오지마을 초중고학생의 등하교 택시를 실시하여 주도로 군지역 8개 교육청에 건의하여 “익산·부안·고창·장수·진안·무주·임실·순창교육청에서는 스쿨버스인 대형버스나 미니버스를 폐지하고 개인택시로 약 37여대가 대체 운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부터는 부안, 완주군에 벽지 및 오지마을 택시 DRT(버스 미운행지역 대상)가 운행되어 택시운송사업의 영업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고 박상의 이사장은 말하였다.

◇ 브랜드 및 택시 선진화

박상의 이사장은 군산조합장 시절인 2008년 전라북도 최초로 군산시에서 ‘새만금 브랜드 콜’ 600여대를 발족시켜 한때는 하루 8,000콜 이상을 받아 택시수입의 50% 이상을 콜 승차 요금으로 벌수 있도록 하였으나 콜 건수가 많다보니 허실콜이 다수 발생하여 콜 요금으로 1,000원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는 99%의 콜 성사율을 가져와 조합원들이 콜 운영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박상의 이사장이 전북조합 이사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전주 한옥 브랜드 콜 1,400대, 전주 브랜드 콜 600대, 익산 서동 브랜드 콜 600대 등 전라북도 도내 5,717대중 총 4,182대가 콜 시스템을 장착하여 장착율 약 73%에 이르고 있다.

◇ 감차 보상 추진 활발

택시발전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보상 감차 댓수가 전북은 전주시를 비롯 6개시에서 756대의 감차요인이 발생했다.

박상의 이사장은 해당 시 조합장들과 협력하여 감차를 추진 현재까지 239대를 보상받고 감차를 시켰다.

‘전북조합이 전국 16개 시·도조합중 보상감차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시조합장들이 시의원 과 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꾸준하게 설득하고 예산 지원을 요구한 결과라고 박 이사장은 말한다.

박상의 이사장은 “2014년도에도 해당지역에 감차예산이 확보되어 195대를 감차할 계획이며 2014년도 연말까지 총 434대를 감차시켜 감차율 74%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대수가 감차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2014년 하반기까지 전북도내 14개 시군에서 8개시군이 현재 택시 총량제 용역을 완료하였거나 실시중에 있어 2015년부터는 총량제에 따른 감차 대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글·김관술>

전북조합 발전을 이끄는 임원진



하병영 이사



서세원 이사



서광식 이사



김동진 이사



서준성 이사



최성호 이사



조병호 이사



김광식 이사



박근주 이사



김상준 이사



최용운 감사



유인근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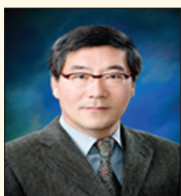
김윤상 감사



전주단위조합장 이문규



익산단위조합장 김주식



군산단위조합장 이홍선



정읍단위조합장 최정열



김제단위조합장 박채섭



남원단위조합장 김준영



부안단위조합장 김동석



고창단위조합장 김재중



완주단위조합장 이길영



임실단위조합장 왕동열



순창단위조합장 송양수



무주단위조합장 정경래



진안단위조합장 김옥남



장수단위조합장 정춘원



정동섭 대의원



이막동 대의원



한준규 대의원



홍은표 대의원



김중태 대의원



최복상 대의원



정문수 대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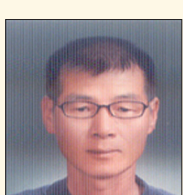
이길구 대의원



박찬기 대의원



송공섭 대의원



박종식 대의원



소승섭 대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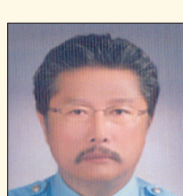
조병욱 대의원



박성용 대의원



최옥술 대의원



권정일 대의원



양인권 대의원



이성길 대의원



강철승 대의원



주병선 대의원



김정하 대의원



배해수 대의원



송재욱 대의원



이광삼 대의원



김기상 대의원



박준앙 대의원



박일상 전무



박도현 공제부지부장





#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올해 여름은 이상기온으로 100년 만의 무더위가 찾아와 최대의 폭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상청은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새롭게 의견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무더운 여름날씨는 신체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위험요소이므로 항상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 폭서기 질환과 응급처치 요령

무더운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인간은 자율신경계 조절작용에 변화가 일어나기 쉬워 더위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신체상태의 혼란을 겪게 된다. 여름철에 야외에서 운동을 하거나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은 다양하다. 각각의 질병에 대한 원인과 증상, 응급조치 등을 알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열실신은 고열에 노출될 때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않아 현기증이 나고 급성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거나 실신하게 되는 현상이다. 고온환경에서 일할 때 머리가 아프다거나, 한두 차례 어지럽다는 것을 느끼는 이러한 증상은 자세를 갑자기 바꾸거나, 오래 서 있을 때나, 무리한 작업을 할 때 주로 일어난다. 이때는 서늘한 곳에 작업자를 눕혀야 하며, 수분 내에 회복되지 않으면 반드시 의료진을 불러야 한다.

경련은 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운동을 할 경우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근육 경련은 30초 정도 일어나나 심할 때에는 2~3분 동안 지속하기도 한다. 이의 경우에는 0.1% 식염수(물 10에 소금 한 티스푼 정도)를 마시게 하고, 경련이 일어나는 근육을 마사지해 주어야 한다.

열피로는 고온에서 장시간 힘든 일을 하거나,

심한 운동으로 땀을 다량 흘렸을 때 발생한다. 주증상은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며, 몸이 나른해지고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 두통, 변비 또는 설사가 비교적 흔히 나타나며 실신하는 일도 있다. 이때는 환자를 서늘한 장소에 옮겨 열을 식힌 후 0.1% 식염수를 공급하고, 심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진단을 받도록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에서 땀을 많이 흘릴 때에는 전해질이 함유된 수분, 소위 이온음료를 마셔도 좋다.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갑자기 발생하는 심각한 체온조절 장애이며,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다. 주증상은 중추 신경장애이며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 건조, 허탈, 혼수상태, 헛소리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보이면 지체없이 입원시켜야 하며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환자를 서늘한 장소로 옮겨 열을 식히고,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고 몸을 선풍기 등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등 응급처치를 해 주어야 한다.

땀띠는 고열과 습도에 의하여 땀을 많이 흘릴 때 땀샘의 개구부가 막혀 땀샘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피부에 조그만 붉은 구진이 무수하게 나타나며, 대부분은 맑거나 우유빛 액체가 찬 수포로 변하고 주위에는 홍륜이 생긴다.

## ▶ 폭서기 산업현장 재해 사고도 주의해야

폭서기에는 여러 형태의 산업재해도 빈번히 발생한다. 온도상승에 의해서 위험물 폭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계손상 및 작업자의 오작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땀이나 수분에 의한 감전 재해도 주의해야 한다. 산업현장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폭서기 안전교육을 하고, 하루 중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1~3시 사이에는 휴식시간을 자주 짧게 가지는 것이 좋다.

가스용기 등의 인화물질은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고, 건설 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또, 세균번식으로 위생환경이 악화하기 쉬우므로 현장의 가설숙소, 식당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철저히 소독하여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여름철 건강유지법

열병과 사고가 빈번한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유지를 위해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숙면을 위해서는 에어컨을 틀고 수면을 취하기보다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벼운 운동을 하고 찬물로 목욕을 하면 시원한 감각을 느끼면서 잠들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업무 이외에는 가급적 스케줄을 줄이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이고 여유 있게 생활하는 것이 정신과 신체건강에 좋다. 또 가능한 한 냉방에의 노출시간을 줄이고 실내외의 온도차이를 섭씨 5~8도 내외로 유지하며, 한 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면 한결 쉽게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 아침식사를 꼭 한다.
- 비타민이 많은 과일을 자주 먹는다.
- 근무시간에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셔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 과로를 피하고 과도한 음주를 피한다.
- 흡연은 호흡기 증상을 악화시키고 여름철 감기를 더 잘 걸리게 하는 주범이므로 금연을 실천한다.
-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는 환경이 지나치게 냉방에 노출된다면 소매가 긴 내의나 스웨터를 준비하여 실내에서 입도록 하고 심하게 추위를 느끼면 얇은 담요를 준비하여 무릎 위를 보온하는 방법도 좋다.
- 바깥 공기를 쐬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면 좋다.





데스크칼럼

# 안전운행이 최고의 서비스다!

간혹 지인들과 만나면 개인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논쟁을 벌일 때가 있었다. 개인택시를 타면 운행속도가 왜 그리 늦느냐는 거다.

주로 바빠서 택시를 타는데 교통 신호 다 지키고 정속운행하여 답답하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일견 타당한 주장도 되겠다 싶어 확실하게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대참사를 보면서 원칙을 준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

아직 침몰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노령의 선박사용, 선사의 불법적인 증축과 관청의 인·허가, 이로 인한 승선인원의 증가 및 화물의 과잉적재, 그로 인한 평형수의 부족 등이 침몰의 상당한 원인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선박 전문가들은 세월호는 총체적 부실로 대형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정부당국의 구조 부분은 조사가 진행 중임으로 논외로 하겠다.

사고의 원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칙을 무시하는 것과 무사안일한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목도하였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크고 작건 사고는 개인을, 한가정을, 또는 한사회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사고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비용의 지출 또한 엄청난 부담이다.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

고속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문화가 필요한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피해도 만만치 않다.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여유로움, 내 모습의 반추,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간과할 때가 많다.

빠름은 필연적으로 부실을 동반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각종 사고가 이를 증명 한다.

이제는 느낌의 미학이 필요할 때이다. 느림은 빠름의 반대말이 아니다. 조급함에서 벗어나 한발짝 물러서서 나의 삶을 관조하고 크게는 이 사회가, 국가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를 구별해서 사회적 현상과 가치관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

우리 개인택시는 항상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슬프게도 오늘날은 불황에

한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심정이야 백분 이해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다수 개인택시 사업자는 대승객 서비스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서비스 보다도 최우선하여 안전운행이 최고의 가치이고 서비스 라고 주장한다.

이 기회에 동업 법인 택시 업계에도 제언을 한다. 소위 야간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총알택시는 승객을 위해서 그렇고 운전자 자신을 위해서도 근절되어야 한다.

정속운전으로 안전운행을 하여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홍보·지도차장  
김도길

## 현대카드M-개인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위한 경제적인 자동차 생활 카드



**연회비**  
유류 국내전용 면제  
일반 국내전용 5,000원(초년도 정상 부과, 차년도 이후 면제)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서비스

#### LPG 충전 시 리터당 239원 면세 및 보조금 혜택

- 한국석유공사 공시가 기준으로, 국세청 및 국토해양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일 4회 한도
- 부재일 이용건, 1회 충전 한도량 72리터 초과 시 해당건 지급 거절
- 충전 회차 1시간 이하건 서비스 제공 불가

#### SK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최고 1% M포인트 적립

#### 전국 400여 개 하이카프라자 지정점에서 자동차 부품 및 용품 최고 50% 할인(카드 최초 발급 시 동봉된 쿠폰 지참 시 적용)

#### 종합건강검진 40~60% 할인

- 카드 이용금액 연체 시 23.5~29.5%의 연체이자율 적용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상품 설명 및 약관 참고
- 카드 신청은 전국 시·도 조합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

### M포인트 적립 및 사용

#### 이용금액의 0.5% M포인트 적립

- 세이브-오토 및 신차 구매 시 별도 적립률 적용 (세이브-오토 이용 시 1,000원당 20 M포인트 적립)
- 현금서비스, 카드론, 연회비, 제수수료, 이자, 지방세·국세 등 세금 납부액 및 도시가스 요금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적립 제외

#### 현대·기아차 신차 구매 시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 세이브-오토로 30만원 선결제 후, 최고 3년간 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M포인트로 적립하여 상환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심의필 제140710-131516호(2014.07.10)



현대카드 홈페이지  
www.hyundaicard.com

현대카드 고객센터  
1577-6000



차량 봉사활동을 가다

# 생업을 포기하고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무료봉사하는 '안산조합 개인택시는 착한택시' TV·일간신문 칭찬



백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자원봉사 결의를 안산시청에 알리고 시청의 요구를 받아 사고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조합은 자원봉사 신청자들의 순서를 매기고 순서에 따라 10대를 단원고로 보냈다. 단원고에 도착한 조합원들은 학생, 선생님, 유가족 등을 태우고 수습된 학생들의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을 운행했다. 이렇게 시작된 조합원들은 40여일동안 총 8백여대가 힘든 차량봉사 활동을 벌였다.

소식에 안산조합은 유가족 수송을 맡기로 결정하고 1진으로 개인택시 10대를 진도 현지에 띄웠다. 400km가 넘는 장거리를 달려온 1진은 현지에 도착하고 보니 실종자 유가족중에는 조합원인 김주아, 김민지 학생과 이지혜 선생님의 아버지가 끼어있었다. 현지에 대기중인 유가족 중에는 조합원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의 자원봉사는 적극적으로 변했다. 400km가 넘는 장거리를 앰블런스를 따라오면서 과속으로 불법운전해야 하는 힘든 봉사인데도 130여대가 참여한다.

지난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 일반승객 등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단원고 학생과 선생님 등 254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학생들의 참변 소식으로 안산시내는 슬픔과 비통에 잠겼다. 시민들은 안타까운 참변소식에 망연자실했고 단원고를 비롯 시청, 경찰서 할 것 없이 모든 기관도 사고 수습책에 발벗고 나섰다.

평소 시민들의 발이 되어 안산 시내 구석구석을 다람쥐처럼 누비던 개인택시 안산조합원들도 그들의 생업도 접고 자원봉사에 나섰다.

사고소식을 듣고 백용호 조합장을 비롯 임원들이 사무실에 모여 긴급회의를 갖고 개인택시가 할 수 있는 교통편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자원봉사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백 조합장은 2천여 조합원에게 임원회의 내용을 전달하고 택시 운행 경비 일체를 자비로 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줄것을 독려했다.

조합원들은 누가 먼저라 할것 없이 봉사활동을 지원했다.



▲ 안산조합소속 개인택시들이 유가족을 무료로 태우기 위해 줄지어 대기중이다.

진도 현지에 내려오면 곧바로 되돌아 가지 못하고 2~3일동안 대기하면서 잠자리가 없어 택시 안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다.

또한 유가족을 태우고 앰블런스를 따라갈때는 앰블런스를 놓칠까봐 과속운전을 하면서도 비통에 잠긴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칠까 염려돼 침묵운전을 하다 보면 휴게소에 들러 불일도 볼 수 없었다.

백용호 조합장은 "어쩔수 없는 과속운전인데 벌금고지서가 사무실에 날라올때마다 조합원들에 대한 미안함이 컸다"고 말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40일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준 조합원들이 고마웠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차량 봉사 초기에는 희생자 가족들이나 생존하여 돌아온 학생들이 부르던 시내 어디든 운행한다. 안산시내권을 맴돌던 교통편의 제공 자원봉사는 사고지역인 진도와 목포까지 넓혀진다. 수습된 시신을 싣고 진도에서 안산까지 오는 앰블런스는 있는데 유가족이 타고올 승용차는 없다는 딱한

한편 안산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교통편의 제공 봉사 활동이 TV는 물론 조선일보 등 국내 유명 신문들이 '착한 택시'라고 앞다투어 칭찬을 해주어 보람을 느낀다고 조합원들은 말한다.

<글·양소진>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13-2-963(2013. 12. 30 현재)



## 신한My-Taxi 행복대출

개인택시 사장님께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를 우대하여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보증보험담보 대출상품입니다

### 대출금리 최저 연 5.13% 이상

원금분할상환방식, 금융채6개월물, 2013. 12. 24 기준 / 최대 연 0.6%까지 우대가능

- 신한 개인택시운송사업카드 보유시 0.2% · 신한카드 결제계좌 당행 지정시 0.1% · 한국 스마트(이비)카드 입금계좌 당행 지정시 0.2%
- 당행 예금 또는 적금 보유시 0.1% · MyCar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보유시 0.2% · VM뱅크(S뱅크) 가입시 0.1%

-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1년 이하 · 원금분할상환: 3년 이상~5년 이하
- 준비서류 · 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 · 차량등록원부 · 소득증명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

### 고금리 할부대출 전환은 MyCar 신차 대환 대출

### 신차구입은 역시! S-MORE MyCar대출

### 대출금리 최저 연 4.71% 이상

COFIX(잔액) + 2.6%, 6개월 변동금리, 2013. 12. 24 기준 / 최대 연 0.8%까지 우대 가능

- 급여이체시 0.2% · 신한카드 결제계좌 전환시 0.1% · S20클럽 고객 0.1% · VM뱅크(S뱅크)서비스 포함 가입고객 0.1%
- 거차식/적립식 예금(주택청약 종합저축 포함, 1년제, 인터넷 신규 포함) 또는 신탁 가입고객 0.1%
- 아파트관리비 0.1% · 공과금(지로) 자동이체 0.1% · 수해 침수피해 차량 확인 0.2%



**신한은행**  
www.shinhan.com

은행에 관한 모든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77-8000, 1544-8000, 1599-8000

※대출 취급시 고객부담으로 인자대금(50%) 등 부대비용과 대출상환시기 및 금액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도별 차등 적용되며, 대출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참조 또는 영업점직원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탐방**

**전북개인택시 테니스 연합회**

**전국대회서 금·은·동배 전 종목 석권  
전주 익산·군산 클럽이 오손도손**



▲ 2014년도 전국개인택시테니스대회 참석 기념촬영

전주·익산·군산 조합 테니스 클럽 회원이 연합하여 운영하는 전북개인택시 테니스 연합회(회장 오영식)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전주·익산·군산 조합 테니스 클럽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모여 운영하던 동호회가 전북개인택시 테니스 연합회를 구성한 것은 1997년—

해마다 열리는 전국개인택시 테니스 대회에 조 대표를 선발 참가하기 위해 창립된 연합회는 회원 간의 기량 향상과 친목을 도모하는 중심체적 역할을 해왔다.

연합회 운영은 3개 클럽이 클럽별로 1년에 내는 24만원의 적은 연회비로 운영한다.

“하지만 연합회 운영은 내실있게 하고 있다.”고 오영식 회장은 말한다.

3개 클럽 회원간의 친목도 넓히고 테니스 기량 향상을 위해 1년에 한차례 연합회장배 클럽대항 친선경기를 열고 전국개인택시 테니스 대회에 출전할 도대표선수를 선발하고 1년에 3회 3개 시클럽이 윤번제로 친선 경기를 갖는다. 전북개인택시 테니스 연합회는 3개 클럽으로 규모는 단촐하지만 실력은 탄탄하다.

테니스 구력 30년인 오영식 회장이 이끄는 연합회는 지난 4월 23일 대전이 충남대학교 테니스장에서 열린 제 14회 전국테니스대회에 출전 3개 종목에 35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금배우승’, ‘은배우승’, 동배는 준우승을 하는 실력을 거두었다.

전국 11개 시도조합 선수 및 임원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열린 전국개인택시 테니스 대회는 매년 시·도조합이 돌아가면서 주최한다.

전북 테니스 연합회는 제1회 대회부터 꾸준히 참가하여 그동안 우승 4회, 준우승 3회, 3위 4회 등 매년 각 종목에서 수상했으나 금·은·동배 전종목에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 14회 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참가한 박상익 이

사장은 “전국개인택시 테니스 대회에 우리 전북 연합회가 해마다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둬 전북 개인 위상을 높여주어 전북 개인택시 테니스 연합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 전주시 클럽

전주개인택시테니스 클럽은 개인택시를 하면서 테니스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회원 18명이 뜻을 모아 2000년 4월 25일 창립대회를 갖고 문춘성을 초대회장으로 선임 하였다. 문춘성 회장은 초대 회장으로 회원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전주클럽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후로는 전국개인택시테니스연합회 회장을 역임 하면서 전국대회를 전주에 유치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신성일 회장아래 총무 김정수, 경기이사 이무열이 전주 클럽 50여명의 회원을 이끌고 있으며 매주 1회는 휴조가 같은 회원끼리 친선경기를 실시하고, 매월 1회는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월례대회를 실시하여 경기력 향상을 제고하고 있다.

전주클럽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테니스를 좋아하는 전주개인택시라면 누구나 테니스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고 신성일 회장은 말하였다.

(회원가입 문의: 총무 김정수 010-4653-1654)

◇ 익산시 클럽

익산개인택시테니스 클럽은 각 사회단체 클럽에서 개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택시를 모아 2001년 3월 17일 회원 20여명으로 창립하였으며 초대 회장으로 조익현을 추대하였다,

익산클럽은 현재 60여명의 회원을 임규영 회장의 지도아래 총무 겸 경기이사 김운겸이 이끌고 있

으며, 테니스가 주는 운동에 매력을 흠뻑 만끽하면서 매주 1회는 참석 가능한 회원끼리 연습경기를 실시하고 있고 매월 1회는 전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월례대회를 실시하여 경기력 향상 자에게는 조그만한 시상품을 수여, 전 회원의 경기향상과 회원 유대 강화등 끈끈한 친목을 다져가고 있다.

(회원가입 문의 : 총무 겸 경기이사 김운겸 010-6490-5578)

◇ 군산시 클럽

여러 운동을 좋아하는 김명수가 다른 구기종목에 비해 비교적 부상이 적고 사회적으로 신사의 운동이라는 테니스 클럽을 창립하고자 테니스에 뜻이 있는 회원 15명이 2002년 4월 21일 창립대회를 갖고 초대 회장으로 창립에 힘쓴 김명수를 초대회장으로 선임 하였다.

2002년 창단된 군산클럽은 군산사회단체 테니스클럽으로 발돋움하여 테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테니스에 뜻이 있는 자는 누구도 차별을 두지 않고 가입시켜 한 가족처럼 화목한 클럽을 꾸려가고 있다.”고 가두현 회장은 말하였으며, 가두현 회장아래 총무 윤석남, 경기이사 김영창이 40여명의 회원을 이끌고 있다,

경기는 매주 1 회씩 가급적 전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연습경기를 실시하고, 매월 1회는 클럽회원끼리 팀 경기를 실시하여 정신수양과 육체를 단련하고 있다.

(회원가입 문의 : 총무 윤석남 010-3674-0111)

전북개인택시 테니스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오영식 부회장 신성일(전주회장) ▲가두현(군산회장) ▲사무국장 이무열(전주)

<글·김관술>



▲ 전북개인택시테니스연합회 회장 오영식이 우승기를 박상익 이사장에게 전달후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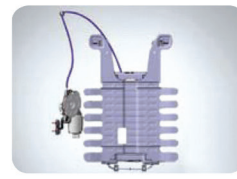
더 빠르게, 더 경제적으로, 더 큰 행복을 드리는

TO THE WORLD BEST **K5 TAXI**  
2015년형

1 더큰가치, 더큰행복

**10Way 파워 시트**

운전석 시트의 높낮이 및 등받이 각도 등을 **전동식 10Way 방식**으로 조절이 가능하여 장시간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전동식 허리지지대



2 더큰가치, 더큰행복

**안락하고 쾌적한 시트**



앞좌석 히터드 시트



앞좌석 슬라이딩 헤드레스트



운전석 통풍 시트 (선택품목)



착좌감 및 내구성이 강화된 시트 (인조가죽시트 기본 적용)

3 더큰가치, 더큰행복

**고객선호 사양 확대**



- ① 자외선 차단글라스
- ② 후방주차보조시스템
- ③ 스티어링휠 오디오 리모컨
- ④ 운전석 / 동승석 에어백
- ⑤ CDP 오디오(MP3 재생) AUX & USB 단자
- ⑥ LED 보조제동등
- ⑦ 폴딩타입 무선도어 리모컨키
- ⑧ 스티어링 휠 (수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 본 인쇄물에 수록된 제품 색상 및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물에 수록된 내용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Power to Surprise

세계 유명 디자인상을 휩쓴 K5가 당신의 자부심을 완성시켜 드립니다



best of the best 수상  
제품·수송디자인 분야



Winner 수상  
제품·수송디자인 분야



Winner 수상  
차량 디자인 분야

